


공동체 소식



연중 제 28주일

하느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과 속셈을 헤아리시고,
그 무엇도 아버지 앞에 숨길 수 없사오니, 저희 마음을 말씀의 칼로 꿰뚫으시어,
거룩한 지혜의 빛으로 지상의 것과 천상의 것을 분별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하여 가난하고 자유롭게 살게 하소서.

10월 기도지향

- 문석찬 요셉, 문문주 엘리사벳 가정
- 김도영, 박희영 카타리나 가정

본당 평협회

- 10/18(주일) 주일교중미사 후, 본당회관

로렌스 공동체 미사

- 일시 : 10/24(토) 오후 5:30

주일학교 공지

- 초등부 교리-주일 오전10:00, 회관
- 중등부 교리-주일 오전10:00, 성당지하

본당 쉼기도 모임

- 화요일 모임 : 저녁미사 후, 회관
- 수요일 모임 : 오전 10:00, 회관

본당 운영을 위한 비용지출에 대하여

본당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지출은 본당의 운영방향과 운영 목표와 관련하여 긴밀히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인 개개인의 신앙심을 표현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적은 비용의 비용지출이라 할지라도 먼저 운영결정권자의 결재를 얻는 방법이 합리적이며, 정기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사후 결재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본당운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분들이 이러한 부분을 인식하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459	210	174/165	434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이번주일	문호진 안토니오	정병훈 보니파시오
	문에나 요안나	정예찬 미카엘
다음주일	문호진 안토니오	안광민 야고보
	차민서 임마누엘	정예찬 미카엘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김정원 베드로 김말자 세실리아
차주	최은미 아네스	김병철 베네딕도 김경희 스킴라스티카

애찬 봉사자

금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차주	최선윤, 김계숙, 조정희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리미야, 문석찬 요셉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0/4	85명	372불	0불
(총 0세대)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홍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야**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8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려는 이들에게,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와서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초대에 응답합시다.

그림 묵상

하늘의 보물

가진 것을 모두 이웃과 나누며 주님을 따르는 일만큼 어려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외적인 생활과 내면의 생활이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지만 하늘의 보물은 나눔과 청빈의 삶을 기쁘게 살아갈 때 절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소서.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7,7-11 < 나는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



화 답 송 :

주 - 님 넘 치 도 록 자 비 를 베푸 시 어 저 희 한 생 즐 겁 고 기 뻑 게 하 소 서

- 날수 쉼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저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 주님 돌아오소서 언제까지 오리까 당신의 종들을 어여뵈 여기소서. ◎
- 새벽부터 넘치도록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 한생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저희를 괴롭히신 그 날수만큼 저희가 불행하던 그 햇수만큼 그만큼 저희를 즐겁게 해주소서. ◎
- 당신께서 하신 일을 종들에게 보이시고 당신의 영광을 그 자손에게 보이소서. 주 저희 하느님의 어지심이 저희 위에 내리옵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

제 2 독서 :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4,12-13

< 하느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30 <또는 10,17-27>
<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라라. >



포기하는 삶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읍니다. 이 이야기는 가르침을 전해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부르심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복음서는 보통 예수님께서 만나고 부르는 이들이 자신의 것을 모두 버려두고 따랐다고 전합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은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한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 예의를 갖추고 영원한 생명을 구합니다. 예수님의 답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계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 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사명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횡령에 대한 금령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소개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십계명에서 후반부에 나오는, 곧 인간들 사이의 사랑 실천을 나타내는 계명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족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청년은 이 모든 것들을 어려서부터 모두 지켜왔다고 자신있게 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나누어 주고 따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복음서는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따랐던 청년이지만, 이제 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청년은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에 순응하지 못합니다. 그의 부는 이웃을 사랑하는데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는 걸림돌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계명이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과 같은 선상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구원이 사람의 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서는 이 모든 것들을 '지혜'를 통해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혜를 왕홀과 왕자보다 더 좋아하고, 지혜에 비기면 많은 재산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석도 지혜와 견주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길 수 없다는 지혜서의 말씀은 그것을 듣는 이들도 역시 그렇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것이 체험에서 오는 지혜서의 생각입니다.

무엇인가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한편으로 재화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어려운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돕는데 재화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들은 조금은 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나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물'을 포기했던 제자들, 자신의 걸음을 벗어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예리코의 눈먼 이... 이들은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슬퍼하며 떠난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야기에서 공통적인 것은 '포기'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든 온전하게 따르는 삶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천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없다면 이웃 사랑 역시 무의미 하기 때문입니다.

- 허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교수 -



잘못된 사랑에 집착한 포티파르의 아내

야곱의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팔려 간 곳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의 집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귀한 존재에서 낯선 이국땅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미워하고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되었고,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구김살 없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청년 요셉을 주인은 늘 흠족해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39,1-6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을 지녔던 요셉에게 포티파르는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요셉을 신임했습니다. 그런데 포티파르의 아내는 젊고 수려한 외모를 가진 청년 요셉에게 흑심을 품고 그를 유혹했습니다. 매력 있는 청년 요셉에게 포티파르의 아내는 유부녀이면서도 잘못된 사랑의 열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유혹에 빠지지 않자 오히려 포티파르의 아내는 막무가내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녀는 무엇이라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요셉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39,7-20

포티파르 아내의 간계로 요셉은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셨고,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에게 미움을 사서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팔려 간 곳은 파라오의 경호대장인 포티파르의 집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요셉은 귀한 존재에서 낯선 이국땅의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미워하고 현실을 부정하려 해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되었고, 자신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종살이를 하면서도 구김살 없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청년 요셉을 주인은 늘 흠족해 했습니다. 요셉은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나요

푸시어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비록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지만 옥 생활은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 해석을 잘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은 파라오의 꿈까지 해석해주어 이집트의 기근을 해결하고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금 길지만 재미있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창세 39,21-41,49

포티파르의 아내가 요셉에게 연민을 품은 것 자체는 사실 나쁘다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포티파르의 아내는 진정한 사랑이 아닌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구에만 집착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누명을 쓰고 죄인의 몸이 되었지만, 감옥에서도 성실한 그의 모습은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믿음과 삶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 글 어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답

열려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

나는 왜
'열려라'
하고 들리는 걸까요?

마음의 담이 쌓여 있어 그럴까요?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마르 7,34)

- 임의준 신부(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